

##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1차확대회의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확대회의 지도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힘있게 떨치며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과감히 전개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1차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



군건설과 군사활동의 기본방향과 방도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군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무적의 총창으로 튼튼히 보위하고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혁명의 전위대로, 주력군으로서의 본분을

위원회 제7기 제1차확대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군종,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 무력기관 책임일군들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확대회의에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현시기 인민군대의 실태를 종합

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혁명적당군을 군사정치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국가방위사업전반에서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대책들이 토의 결정되었다.

확대회의에서는 또한 당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을 해임 및 임명,

무력기관 책임일군들을 해임 및 조동하고 새로운 간부들을 임명할데 대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확대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이후 인민군대의 군사정치과업수행정형에 대하여 분석총화하시였

으며 혁명투력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혁명적군풍을 확립할데 대한 문제, 당이 밝혀준 훈련혁명방침, 사상혁명방침, 군대현대화방침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문제, 군인생활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다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하고 앞으로도 당과 수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과 본태를 영원히 고수하고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빛나게 수행해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차후 북남관계의 방향은 남조선 당국의 행동여하에 달려있다고 언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은 남조선당국이 예정되어있던 북남고위급회담이 무산된 책임을 공화국에 전가해보려고 첩면피한 추태를 부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였다.

그는 최근 남조선당국이 한편으로는 미국과 야합하여 공화국의 주요전략적대상들에 대한 정밀타격과 제공전장악을 노린 극히 모험적인 《2018 맥스 센터》연합공공전투훈련을 강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쓰레기들을 《국회》마당에 내세워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비방중상하는 놀음을 빼앗아 버려놓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화국은 남조선당국이 책임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북남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

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해 16일 남측당국에도 통고하고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로도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이 취한 조치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고 필요한 수습대책을 세출대신 현재까지 터무니없는 《유감》과 《추구》따위나 운운하면서 상식이하로 높아대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남조선당국의 이 모든 대결소동들은 지난 시기 적대와 분렬을 본업으로 삼던 보수 《정권》의 속성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 땅에 펼쳐진 현실에 대한 초보적인 감각도, 마주한 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표상도, 흐르는 대세에 대한 현실적인 판별력도 없는 무지무능한 집단이 다름아닌 현 남조선당국이라는것을 이번 기회에 명백히 판단하게 되었다.

신의신뢰가 결여되고 무례무도한 사람들과 마주앉아서는 그 언제 가도 나라와 민족의 진도를 열어가는 새 역사를 써나갈수 없다는것은 지난 력사가 보여준 교훈이다.

우리의 립장은 명백하며 불변이다.

북남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하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첩면피한 추태로 일관된 변명과 구실을 늘어놓으며 터무니없는 책임전가에 매달리면서 시간을 허송할것이 아니라 현 상황을 만회할수 없는 최악의 사태로 번져지는데 대해 머리를 싸쥐고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

차후 북남관계의 방향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행동여하에 달려있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은 16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미관계의 불미스러운 력사를 끝장내려는 전략적결단을 내리시고 우리 나라를 방종한 폼페오 미국무장관을 두차례나 접견해주시였으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참으로 중대하고 대범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의 숭고한 뜻에 화답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력사적부리가 깊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을 표명한데 대하여 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이 조선반도의 정세완화를 추동하고 훌륭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큰걸음으로 될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런데 조미수뇌회담을 앞둔 지금 미국에서 대화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들이 마구 튀어나오고있는것은 극히 온당치 못한 처사로서 실망하지 않을수 없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 조선외무성 제1부상 담화 발표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방식을 내세우면서 그 무슨 리비아핵포기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니, 《핵, 미사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참으로 중대하고 대범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니 하는 주장들을 꺼리낌없이 쏟아내고있다.

이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대국들에게 나라를 통제로 내맡기고 봉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다.

나는 미국의 이러한 처사에 격분을 금할수 없으며 과연 미국이 진정으로 진정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미관계개선을 바라고있는가에 대하여 의심하게 된다.

세계는 우리 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데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있다.

핵개발의 초기단계에 있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있는데 우리는 언제한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것이다.

전 행정부들과 다른 길을 걸을것이라고 주장하고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의 핵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을 때 이전 행정부들이 세웠던 핵개발은 대조선정책안을 그대로 만지작거리고있다는것은 유치한 회국이 아닐수 없다.

만일 트럼프대통령이 전임자들의 전철을 답습한다면 이전 행정부들이 따르던 앞으로 조미수뇌회담을 비롯한 전반적인 조미관계전망이 어떻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우리는 이미 조선반도비핵화 용의를 표명하였고 이를 위하여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과 핵위협공갈을 끝장내는것이 그 선결조건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수차례 걸쳐 천명하였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우리의 아량과 대범한 조치들을 나약성의 표현으로 오만하면서 저들의 제압박공세의 결과로 포장하여 내뜨리려 하고있다.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있는데 우리는 언제한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것이다.

전 행정부들과 다른 길을 걸을것이라고 주장하고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의 핵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을 때 이전 행정부들이 세웠던 핵개발은 대조선정책안을 그대로 만지작거리고있다는것은 유치한 회국이 아닐수 없다.

만일 트럼프대통령이 전임자들의 전철을 답습한다면 이전 행정부들이 따르던 앞으로 조미수뇌회담을 비롯한 전반적인 조미관계전망이 어떻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우리는 이미 조선반도비핵화 용의를 표명하였고 이를 위하여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과 핵위협공갈을 끝장내는것이 그 선결조건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수차례 걸쳐 천명하였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우리의 아량과 대범한 조치들을 나약성의 표현으로 오만하면서 저들의 제압박공세의 결과로 포장하여 내뜨리려 하고있다.

지금 온 겨레와 세인은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판문점수뇌상봉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열렬히 지지하고있다.

긴긴세월 민족분열과 대결, 고통의 한을 새기고 전쟁위험이 항시적으로 떠돌던 최대의 열점지역인 판문점에서 온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된 것도 경이로운 사변이지만 그 결과로 마련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은 얼마나 장쾌하고 위대한 선언인가.

오늘의 환희로운 사변은 절세위인의 통일에국지의와 통 큰 결단, 뜨거운 민족애와 과감한 실천력이 안아온 특기할 민족사적사변이다.

세상은 넓고 넓어도 조선반도처럼 불신과 대결이 철예하고 전쟁위험을 항시 안고있는 위험천만한 지역은 없었다. 지난해에는 당장 조선에서 전쟁이 다시 터지거나 그것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 목소리들이 행성의 도처에서 울려나왔다.

그러던 조선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따뜻한 봄빛이 흘러들었으니 그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를 맞으며 발표하신 역사적인 신년사였다.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창건 일흔흔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해이라고, 우리는 민족적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한다고, 의의깊은 올해에 북과 남에서 모든 일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

# 판문점에서 펼쳐진 평화번영의 새시대

판문점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그 음성.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북과 남의 온 겨레를 뜨겁게 품에 안으시고 정을 담아, 사랑담아 말씀하실 때 벌써 그이의 심중에는 2018년을 민족사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되게 하실 크나큰 결심과 전략적구상, 확고부동한 의지가 고백되고있었다.

남측지역에 나가 겨울철올림픽을 올림피사상 가장 감동적인 평화의 올림피경기대회로 장식해주고 온 겨레의 가슴마다 화해와 단합의 소중한 불씨를 지핀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 예술단, 선수단, 응원단은 북남관계의 대전환, 조선반도의 새시대를 마련해주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남쪽에 파견해주신 통일사업단, 평화사절단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고위급대표단을 통해 문재인대통령에게 북남관계개선의지를 담은 자신의 친서도 전달하시고 남조선대통령의 특사대표단이 평양에 왔을 때에는 바쁘신 일정도 뒤로 미루시고 만나주시면서 북남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결단도 내리주셨다.

불신과 대결로 꽂꽂 얼어붙었던 겨레의 마음들을 소곤하듯 녹여주며 이 해의 조선반도에 펼쳐처럼 찾아온 화해의 봄, 평화의 봄은 이렇게 민족을 제일로 위하시는 위인의 파스나 손길에 실려야 찾아온 것이다. 북남관계와 관련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변화가 그토록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게 이루어져온 것도

정세흐름을 확고히 주도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출중한 령도력의 과시이다. 화해와 관계개선의 흐름을 힘있게 떠밀어 오늘의 경이로운 사변으로 이어지도록 정세발전의 매 국면을 추동해주신데 이어 역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을 마련하고 성사시켜주신분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이시다.

판문점.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민족분열의 통한의 아픔이 서러오고 대결과 긴장감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오싹해지는 전연지대중의 최전연지대이다.

살필만 기운이 항시적으로 떠도는 판문점이다. 그것도 북남분리선을 넘어 판문점 남측지역의 《평화의 집》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비의 담력과 대담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민족과 통일을 위해서는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시며 설사 그 길에 가시덤불이 아니라 지뢰밭이 놓여있다 해도 헤쳐가고 뚫고나가는 절세의 애국자, 장군중의 장군이신 우리 원수님이 아니시고는 과연 누가 령두나 낼 수 있는 일이었는가.

역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을 기념하여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대결과 긴장의 땅이었던 판문점에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심으실 때 한몸이 그대로 밀거름이 되고 소중한 이 뿌리를 덮어주는 흙이 되려는 마음, 비바람을 막아주는 비바람막이가 되려는 마음가짐으로 이 나무와 함께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훌륭히 가꾸어나가며 사시정철 푸른 소나무

의 강의함만큼이나 강의한 정신으로 우리 함께 앞날을 개척해나가지고 하신 뜻깊은 말씀에 민족을 위해 자신을 초물처럼 태우시는 그이의 희생적인 헌신이다. 어리어있어 걱정을 금할수 없게 한다.

력사의 그날 판문점으로 향하실 때 그이의 가슴에 간직된 것은 원한의 분리선이 가로놓여있고 대결과 긴장이 한껏 서러워있는 그곳 판문점에서부터 평화와 통일의 돌과귀를 열고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려는 대담한 결단과 크나큰 용기였으리라.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을 만나신 자리에서 분열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민족적사명감과 의무를 다시 한번 그에게 되돌리고 하시면서 오늘 그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출발선에서 신히호란을 쓴다는 마음을 안고왔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와 전세계가 크나큰 기대와 흥분을 안고 지켜보는 판문점수뇌상봉을 령사에 다시 없을 최고로 감동적인 상봉으로 만드시고 조선민족의 새 역사,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활짝 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하신 활동도 보면 볼수록 격정의 눈물을 금할수 없게 한다.

4월 27일, 온 겨레와 세계의 기대와 념원을 안으시고 판문점 분리선을 넘어서시어 남조선대통령과 함께 판문각과 《자유의 집》을 배경으로 각각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판문점분리선

을 넘어 우리측 지역에서 다시 한번 굳은 악수를 나누시고 판문점 남측지역으로 나가시었다. 순간 터질듯 한 흥분과 솟구치는 격정이 우리 겨레와 세인의 가슴과 가슴을 짝 메웠다.

8천만 겨레와 온 세계가 그 령사적인 장면을 보면서 모두가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었다. 남조선의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남북의 지도자가 손을 맞잡고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시원하게 분단선을 넘어서는 장면에서 눈물이 났다.》며 《70년 넘게 이어진 강요된 비극을 갚 새록이같은 사건》이라고 감동을 퍼력하였다.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있는 90살난 할아버지는 한 언론과의 회견에서 북에서 남으로 걸어오시는 김정은위원장님의 모습을 보니 신기하고 눈물이 났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외세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금단의 선, 분단의 벽을 북남의 수뇌분들이 어떻게 순간에 허물어버리시는가를 전세계에 독특히 보여준 감동깊은 화폭이었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력사의 출발점에서 김정은》

2018. 4. 27》

뜻깊은 회담에 앞서 방명록에 남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활달하신 이 친필은 우리 조선민족에게 평화번영의 밝은 새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판문점의 장쾌한 불우되었다.

그날의 력사적인 회담에서 이러한 특별한 곳에서의 만남은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과 꿈을 다시 안겨주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회담에 상정된 의제들에 대하여 견해일치를 보시고 앞으로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들과 민족의 중대사를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하시었다.

삼천리와 온 행성에 커다란 감동과 환희를 안고 메아리처럼 령사적인 판문점선언은 이렇게 태어났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 땅위에 거이이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열화같은 민족애와 드림없는 자주의지가 자자구구에 어려있는 민족운명개척의 새로운 리정표이다.

새로운 력사가 만들어진 기간은 고작 하루, 시간으로 따지면 불과 12시간밖에 안된다. 그 짧은 시간에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이시야말로 위인중의 위인, 조선민족의 희망의 상징이시고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민족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절세위인들의 통일에국의 거룩하신 한생이 숭엄하게 어리여있는 력사의 땅 판문점에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들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남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활달하신 이 친필은 우리 조선민족에게 평화번영의 밝은 새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판문점의 장쾌한 불우되었다.

그날의 력사적인 회담에서 이러한 특별한 곳에서의 만남은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과 꿈을 다시 안겨주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서 마음을 합치고 의지를 모아서 결된 문제들을 풀어나가자고 하시면서 내가 오늘 넘어선 분단선은 높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보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었다. 그리고 좁은 판문점 경계선구역을 평화통일의 대통령로 삼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하시었다.

이 뜻깊은 말씀에서 우리 겨레는 분단의 장벽이 농채로 무너져내리고 북에서 남으로 넘어오는 자유롭게 오가며 평화번영을 누릴 행복한 통일세상을 벌써 보는것만같아 기쁨과 흥분을 리치고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힘있게 추동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판문점선언이 울려 퍼지지 불과 며칠만에 서로 다른 북과 남의 표준시간을 통일하기 위해 《평양시간을 고침에 대하여》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채택된것도 하루빨리 북과 남을 하나로 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과 의지의 과시이다.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 출중한 정치실력으로 공화국을 세계적인 전략학자의 지위에 올려놓으시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북남관계개선과 함께 주동적으로 조미대화국면을 과감하게 열어나가고계신다.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주도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가 있어 통일강국의 찬란한 미래가 펼쳐질것이다. **본사기자 김련옥**

# 역사의 출발점에 어린 송고한 민족애

역사적인 판문점상봉과 4.27선언으로 삼천리강토에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통일의 새시대가 도래하였다.

북남관계발전에서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변화와 대전환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열렬한 민족애와 현명한 령도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장장 70여년 세월 분열의 고통과 불행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지상의 과제이다. 나라와 민족들이 경쟁적으로 발전을 지향하고있는 오늘날 우리 민족이 서로 남남이 되어 반복질하며 대결하는것은 수치이며 자멸행위이다.

북과 남이 신뢰와 화합으로 불신과 대결을 가지고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려는것이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어떻게 하나 북남사이의 경쟁국면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의 대통령을 열어나갈것을 구상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올해에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장식되도록 할것을 결심하시었다.

그이께서 신년사에서 남조선에서 개최되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것이라고 하시며 대표단과견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하신것은 국제체육경기를 민족공동체의 대사로 성대히 치르어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세계에 보여주며 북남관계개선의 훌륭한 계기로 되도록 하시려는 열렬한 민족애, 자주통일의 지의 발현이었다.

하여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을 비롯한 사절들이 남쪽에 파견되어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는 민족공동의 대사로 의의있게 치러지게 되었다.

민족의 분열을 두고 그 무엇보다도 가슴아파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에 온 남조선대통령의 특사대표단을 만나시고 남측에술단의 공연도 보아주시면서

화해와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나가도록 해주셨다.

북과 남이 화해의 봄, 평화의 봄을 맞이한 놀라운 현실에 대하여 남조선 각계와 언론들은 《김정은위원장님은 통일준비를 완료하였다. 남과 북이 대화가 통하고 서로 리해를 하는 지금 놀랍고 정말 기쁘다.》, 《조선반도의 제일 강한 운전대는 김정은위원장 이 갖고있다.》고 칭송하였다.

김현환재미동포, 리준식재유럽동포는 《김정은위원장님의 결단은 막혔던 북남화해의 물줄기를 한순간에 터치고 평화를 바라는 우리 민족에게 가슴 벅찬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었다.》, 《2018년은 김정은위원장의 결심이 실증되는 한해가 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민족의 강렬한 통일열망을 안으시고 북남관계에서 대전환을 가져오고 자주통일의 대토를 활짝 열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민족애와 확고한 의지,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북남관계는 과거의 몇년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전진하며 발전하게 되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력사적사변과 기적이 마련되게 되었다.

제3차 북남수뇌상봉의 그날 남조선 문재인대통령은 오늘과 같은 뜻깊은 만남을 이루어낸 김정은국무위원장의 큰 용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하였다.

력사적인 판문점상봉과 4.27선언 채택으로 분열과 대결의 상징 판문점은 새 력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민족의 새 출발을 선언한 판문점에 어린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민족애는 남측지역 《평화의 집》 방명록에 남기신 친필에도, 판문점에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심으신 소나무에도 어리여있다.

삼천리강토에 통일조국을 안아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민족애와 굳센 의지, 비범출중한 령도에 의하여 통일된 강토에서 평화롭고 번영하는 행복을 향유하려는 겨레의 세기적 념원이 실현될 그날이 꿈아닌 현실로 다가오고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남조선대통령과 뜨겁게 상봉하시었다. 온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판문점분리선을 사이에 두고 진행된 북남수뇌분들의 뜻깊은 상봉이었다. 참으로 많은 의미가 실려있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고 판문점분리선을 넘어서시어 남조선대통령과 함께 판문각과 《자유의 집》을 배경으로 각각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우리측 지역에서 다시한번 굳은 악수를 나누시고 판문점 남측지역으로 나가시었다. 삼천리와 온 행성에 커다란 감동과 환희를 안고 메아리처럼 령사적인 판문점선언은 이렇게 태어났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 땅위에 거이이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열화같은 민족애와 드림없는 자주의지가 자자구구에 어려있는 민족운명개척의 새로운 리정표이다. 새로운 력사가 만들어진 기간은 고작 하루, 시간으로 따지면 불과 12시간밖에 안된다. 그 짧은 시간에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이시야말로 위인중의 위인, 조선민족의 희망의 상징이시고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민족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절세위인들의 통일에국의 거룩하신 한생이 숭엄하게 어리여있는 력사의 땅 판문점에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들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남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활달하신 이 친필은 우리 조선민족에게 평화번영의 밝은 새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판문점의 장쾌한 불우되었다. 그날의 력사적인 회담에서 이러한 특별한 곳에서의 만남은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과 꿈을 다시 안겨주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 역사적인 첫 상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남조선대통령과 뜨겁게 상봉하시었다. 온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판문점분리선을 사이에 두고 진행된 북남수뇌분들의 뜻깊은 상봉이었다. 참으로 많은 의미가 실려있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고 판문점분리선을 넘어서시어 남조선대통령과 함께 판문각과 《자유의 집》을 배경으로 각각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우리측 지역에서 다시한번 굳은 악수를 나누시고 판문점 남측지역으로 나가시었다. 참으로 많은 의미가 실려있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고 판문점분리선을 넘어서시어 남조선대통령과 함께 판문각과 《자유의 집》을 배경으로 각각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 판문점에서의 기념식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기념하여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대결과 긴장의 땅이었던 판문점에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심으시었다. 그이께서는 남조선대통령과 함께 북과 남에서 각각 준비한 백두산과 한나산의 흙으로 함도하고 대동강과 한강의 물을 함께 뿌려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한몸이 그대로 밀거름이 되고 소중한 이 뿌리를 덮어주는 흙이 되려는 마음, 비바람을 막아주는 비바람막이가 되려는 마음가짐으로

이 나무와 함께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훌륭히 가꾸어나가며 사시정철 푸른 소나무의 강의함만큼이나 강의한 정신으로 우리 함께 앞날을 개척해나가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문재인대통령의 명의로 된 표식비에는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글씨가 새겨져있었다. 식수가 끝난 다음 북남수뇌분들께서는 표식비와 소나무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우리측 지역에서 다시한번 굳은 악수를 나누시고 판문점 남측지역으로 나가시었다. 참으로 많은 의미가 실려있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고 판문점분리선을 넘어서시어 남조선대통령과 함께 판문각과 《자유의 집》을 배경으로 각각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조선반도에서 최대의 열점지대로 되여온 판문점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분열과 대결의 대명사로 불리워왔던 판문점이 오늘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력사의 출발점으로 되였으니 이것이 야말로 극에서 극으로의 전환이라고 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정하시고 북남수뇌지역에 나가시으로써 판문점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속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되었다.

그이께서는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기념하여 《평화의 집》 방명록에 뜻깊은 친필을 남기시었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력사의 출발점에서 김정은》

2018. 4. 27》이 불멸의 글밭은 민족이 화해와 통일, 평화번영으로 나아가는 새 력사가 판

문점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위대한 선언이라고 할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판문점을 새 력사의 출발점으로 되게 하신것은 긴긴 세월 우리 민족이 가슴아프고 애타고 있던 분열과 대결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평화번영의 환희로운 미래를 앞당겨 오시려는 그이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문재인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분열과 대결의 력사의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민족적사명감과 의무를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고 하시면서 오늘 그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출발선에서 신히호란을 쓴다는 마음을 안고 왔다고 하시었다.

판문점에서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의 신히호란이 울렸다. 온 민족과 세상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채택되었다. 이것은 자주통일의 새 력사,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한 장엄한 리성이었다.

판문점선언채택은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나라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고 민족공동의 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가는데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리정표를 세운것으로 된다.

지금 온 겨레는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행성을 뒤흔드는 특기할 대사변을 안아오시고 평화번영의 밝은 미래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넘쳐있으며 그이께서 계시어 통일되고 평화롭게 누리게 될 강국의 레일을 크나큰 격정과 환희속에 그려보고있다. **본사기자 고성호**

사람은 황혼기에도 인생길을 바꿀 때가 있다. 세

계평화련합 총재 문선명선생의 경우가 그러하다. 평안북도 정주생애인 문선명선생은 지난 조선전쟁시기 고향을 떠나 남조선에서 생활하면서 《통일교》를 리념으로 내세운 사람이었다.

그가 《반공》으로부터 련공련북에로 국적인 인생전환을 하게 된다는 위대한 결심과 긴장된 위대한 결정을 이루고자 하였다.

1991년 11월 문선명선생은 공화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때 그는 70개를 넘은 몸이었다.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께서 그의 평양방문을 아무런 불문도 없도록 비행기를 띄우도록 하시고 일가친척들의 비행장마중으로 부터 고향방문, 금강산유람에 이르기까지 체류일정

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보살펴주시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선생의 일행이 공화국을 떠나기 전에 친히 그를 만나시고 조국통일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오찬도 함께 하시며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돌려주시었다.

《북과 남이 다 합하여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 되어 김일성주석님을 중심으로 온 7천만 민족이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문을 외우곤

나주시 주석님의 넓은 도량과 포용력은 참으로 위대하다. 쇠붙이가 자석에 끌리듯, 지구가 태양에 끌리듯, 무엇이 못사랑들이 그이에게 매혹되어 평양으로, 평양으로 달려가는 세상리치를 우리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문선명선생은 련공련북을 회회하지 않았으며 과거의 서거하였을 때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개인 그의 노력과 공적을 잊지 않았고 유가

70년과 바꾼 조국방문의 7일을 회회하지 않았다.

그는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는 모든 정당은 자기 리해관계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할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의 민족단합사상을 옹호하였으며 북남교류사업에도 적극 참가하였다. 남조선출판물들은 《평화번영을 위한 길에 생의 흔적을 남긴 애국인사들》로 엄청난 충격이었다. **본사기자 주일봉**

# 절세위인이 펼쳐준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시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일선전국 상보

지금 온 겨레와 국제사회는 불과 몇달전까지만 하여도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극적인 사변들이 조선반도에서 일어나고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진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할하면서 열렬히 지지연행하고있다.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에서 치닫던 북남관계에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자주통일의 새 페이지가 쓰여지게 된것은 결코 하늘이 준 기적도, 력사의 우연도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하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고결한 총정성의

발현이 수령님들의 뜻대로 전민족의 대단결로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실 절세위인의 확고한 통일의지와 대범한 결단, 통이 큰 아량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일선전국은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정치실력,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로 민족의 단합과 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시는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이 상보를 발표한다.

제들을 토의협의하는 각 분야의 북남실무회담들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1월 21일과 22일 우리 예술단과견을 위한 현지로해대표단이 남측지역을 방문하여 공연보장을 위한 준비정형을 로해하고 25일에는 우리 선수단과견을 위한 선배대와 녀자빙상호계이선수단이 남측지역으로 나갔으며 마식령스키장에서는 북과 남의 스키선수들이 공동훈련을 하면서 동포애의 정을 나누었다.

바로 이러한 때인 1월 24일 평양에서 열린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에서는 절세위인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높이 받들고 온 민족이 뜻깊은 올해를 조국통일사에 영원히 빛날 대 전환, 대사변의 해로 뱃배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는 연합회의호소문이 채택발표되어 겨레의 통일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취해주시는 애국애족적인 조치에 따라 2월 6일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위해 남측지역에 나가는 우리 삼지연관현악단을 태운 《만경봉-92》호가 동해의 파도를 헤가르며 남조선의 목포항에 도착하였으며 두 날에는 우리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이 서해북로를 통해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진행되는 남조선강원도지역에 들어섰다.

참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주신데 감사하며 남측지역의 악화일로를 견딘 북남관계는 화해와 단합의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월 25일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폐막식에 우리 고위급대표단을 또다시 파견하시는데 이어 3월에 남조선에서 진행된 겨울철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에 우리 대표단과 선수단을 보내주시어 변함없는 북남화해와 관계개선의지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진두에서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대표단들이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여 훌륭한 성과를 올리고 경기, 응원활동으로 경기대회의 성과와 민족의 화합을 넘넘하는 북녘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전하고 남녘동포들에게 기쁨을 더해주시어 이번 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북과 남의 강렬한 열망과 공통된 의지가

안아온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북남관계개선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해당 부문에서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들을 세출해 대한 강령적인 지시를 주시었다.

은 남녘땅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우리 예술단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예술단성원들의 공연준비기간 여러차례 훈련장에 나오시어 곡목선정으로부터 형상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시연회도 몸소 지도해주시었고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는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성과를 따듯이 축하하시고 영광의 기사사진까지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시었다.

절세위인의 이러한 현명함 령도와 따뜻한 손길이 있어 동족사이에서 불화와 리간을 조성시켜 버리고 발광하던 내의반동일세력의 온갖 책동을 물거품이 되고말았으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피어났다.

다》를 관람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연에 앞서 남측예술단 주요성원들을 만나시어 4월초 정치일정이 복잡하여 시간을 내지 못할것 같아 오늘 늦더라도 평양에 초청한 남측예술단의 공연을 보기 위하여 나왔다고, 짧은 기간에 성의껏 훌륭한 공연을 준비해가지고온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시었다.

공연이 끝난 후 남측예술단 주요배우들을 친히 몸가끼아 불러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 남측예술단의 평양공연은 《봄이 온다》는 제명과 더불어 북과 남의 온 민족에게 평화의 봄을 불려왔다고 하시면서 지역 좋은 분위기를 소중히 지켜가고 계속 키워나갈 때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언제나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화창한 봄과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될것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르며 그들은 가슴속에 굽어있는 격정의 파도를 억제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제인대통령과 분단의 상징이 되고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매우 의미깊은 상봉을 한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이러한 특별한 곳에서의 만남은 그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날에 대한 희망과 꿈을 다시 안겨주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분렬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아가 한다는 민족적사명감과 의무를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 하시면서 오늘 그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는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쏘는다는 마음을 안고왔다고 말씀하시 때 우리 온 겨레는 열렬한 진정이 넘치고 그렇듯 열정이 불타는 그이의 위인적 품모에 크나큰 감동과 매혹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상징된 의제들에 대하여 남측과 친해일치를 보이고 문제인대통령과 함께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서명하시고 선언문을 교환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확고한 의지와 탁월한 정치실력, 한없이 뜨거운 민족애와 대범한 결단에 의해 마련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은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독대사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자주통일의지가 맥박치는 판문점선언은 북남관계의 새로운 력사를 알음이었다. 《갑작 놀랐다. 너무도 뜻밖의 행운이었다.》,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을 뵈는 순간 〈봄이 왔구나〉 하는 느낌에 온몸을 감쌌다. 너무 환하고 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친근하시다. 오늘은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아안은 날이다.》...

이것은 남측예술단 성원들만의 격정이 아닌 남녘겨레모두의 심장의 교백이었다.

### 만민을 격동시킨 애국의 호소 - 북남관계대전환방침

백두산의 장쾌한 해돋이와 더불어 밝아온 주제107(2018)년 새해의 첫아침 불신과 적대의 얼음장을 깨뜨리며 온 겨레를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부르는 절세위인의 뜨거운 애국의 호소, 위대한 선언이 울려 퍼졌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내의반동일회진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제압박소동과 광란적인 전정부발책동으로 얼어붙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데 대해서와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나가기로 한데 대해 내외에 천명하시었다.

북남고위급회담함에 따라 1월 15일과 17일 판문점에서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우리 고위급대표단과 예술단,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적문

제를 토의협의하는 각 분야의 북남실무회담들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1월 21일과 22일 우리 예술단과견을 위한 현지로해대표단이 남측지역을 방문하여 공연보장을 위한 준비정형을 로해하고 25일에는 우리 선수단과견을 위한 선배대와 녀자빙상호계이선수단이 남측지역으로 나갔으며 마식령스키장에서는 북과 남의 스키선수들이 공동훈련을 하면서 동포애의 정을 나누었다.

바로 이러한 때인 1월 24일 평양에서 열린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에서는 절세위인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높이 받들고 온 민족이 뜻깊은 올해를 조국통일사에 영원히 빛날 대 전환, 대사변의 해로 뱃배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는 연합회의호소문이 채택발표되어 겨레의 통일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취해주시는 애국애족적인 조치에 따라 2월 6일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위해 남측지역에 나가는 우리 삼지연관현악단을 태운 《만경봉-92》호가 동해의 파도를 헤가르며 남조선의 목포항에 도착하였으며 두 날에는 우리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이 서해북로를 통해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진행되는 남조선강원도지역에 들어섰다.

참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주신데 감사하며 남측지역의 악화일로를 견딘 북남관계는 화해와 단합의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월 25일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폐막식에 우리 고위급대표단을 또다시 파견하시는데 이어 3월에 남조선에서 진행된 겨울철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에 우리 대표단과 선수단을 보내주시어 변함없는 북남화해와 관계개선의지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진두에서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대표단들이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여 훌륭한 성과를 올리고 경기, 응원활동으로 경기대회의 성과와 민족의 화합을 넘넘하는 북녘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전하고 남녘동포들에게 기쁨을 더해주시어 이번 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북과 남의 강렬한 열망과 공통된 의지가

안아온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북남관계개선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해당 부문에서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들을 세출해 대한 강령적인 지시를 주시었다.

은 남녘땅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우리 예술단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예술단성원들의 공연준비기간 여러차례 훈련장에 나오시어 곡목선정으로부터 형상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시연회도 몸소 지도해주시었고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는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성과를 따듯이 축하하시고 영광의 기사사진까지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시었다.

절세위인의 이러한 현명함 령도와 따뜻한 손길이 있어 동족사이에서 불화와 리간을 조성시켜 버리고 발광하던 내의반동일세력의 온갖 책동을 물거품이 되고말았으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피어났다.

다》를 관람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연에 앞서 남측예술단 주요성원들을 만나시어 4월초 정치일정이 복잡하여 시간을 내지 못할것 같아 오늘 늦더라도 평양에 초청한 남측예술단의 공연을 보기 위하여 나왔다고, 짧은 기간에 성의껏 훌륭한 공연을 준비해가지고온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시었다.

공연이 끝난 후 남측예술단 주요배우들을 친히 몸가끼아 불러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 남측예술단의 평양공연은 《봄이 온다》는 제명과 더불어 북과 남의 온 민족에게 평화의 봄을 불려왔다고 하시면서 지역 좋은 분위기를 소중히 지켜가고 계속 키워나갈 때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언제나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화창한 봄과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될것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르며 그들은 가슴속에 굽어있는 격정의 파도를 억제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제인대통령과 분단의 상징이 되고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매우 의미깊은 상봉을 한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이러한 특별한 곳에서의 만남은 그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날에 대한 희망과 꿈을 다시 안겨주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분렬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아가 한다는 민족적사명감과 의무를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 하시면서 오늘 그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는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쏘는다는 마음을 안고왔다고 말씀하시 때 우리 온 겨레는 열렬한 진정이 넘치고 그렇듯 열정이 불타는 그이의 위인적 품모에 크나큰 감동과 매혹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상징된 의제들에 대하여 남측과 친해일치를 보이고 문제인대통령과 함께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서명하시고 선언문을 교환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확고한 의지와 탁월한 정치실력, 한없이 뜨거운 민족애와 대범한 결단에 의해 마련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은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독대사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자주통일의지가 맥박치는 판문점선언은 북남관계의 새로운 력사를 알음이었다. 《갑작 놀랐다. 너무도 뜻밖의 행운이었다.》,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을 뵈는 순간 〈봄이 왔구나〉 하는 느낌에 온몸을 감쌌다. 너무 환하고 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친근하시다. 오늘은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아안은 날이다.》...

이것은 남측예술단 성원들만의 격정이 아닌 남녘겨레모두의 심장의 교백이었다.

### 세계가 보란듯이 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고 하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높아가는 겨레의 통일지향에 맞게 북남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민족적화해와 통일의 진성기를 펼치시기 위해 남녘의 인사들과 애인들을 평양을 불러주시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나가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3월 5일 남조선대통령의 특사대표단을 접견해주시는 자리에서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고위급대표단을 비롯한 규모가 큰 여러 대표단들을 파견하여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하여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그들에게 한 파출을 나누는 거례로서 동족의 기사를 같이 기뻐하고 도와주는것은 응당할 일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듯이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는것이 우리의 일관하고 원칙적인 립장이며 과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거듭 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남측특사로부러 수뇌상봉과 관련한 문제인대통령의 뜻을 전해들으시고 의견을 교환하시고 만족한 합의를 보시였으며 해당 부문에서 이와 관련한 실무적조치를 속히 취할데 대한 강령적인 지시를 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나가기 위한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회의에서 하신 보고에서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당면한 북남관계발전방향과 조미대화회담을 앞두고 분석평가하시어 여러 실무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시었다.

이러한 속에 4월 9일 평양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회의에서 하신 보고에서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당면한 북남관계발전방향과 조미대화회담을 앞두고 분석평가하시어 여러 실무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시었다.

이러한 속에 4월 9일 평양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회의에서 하신 보고에서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당면한 북남관계발전방향과 조미대화회담을 앞두고 분석평가하시어 여러 실무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시었다.

여주는 중요한 신호이다.》고 특별기사로 긴급보도하시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이 막을수 없는 대세로 되고 있는 속에 지난 3월 31일 남조선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남측예술단이 평양을 방문하시었다.

평양의 노래가 서울에서 울리고 서울의 환호가 평양에 가닿는것이 바로 겨레가 소원하는 통일의 서곡이라는 우리 겨레의 공통된 지향을 소리높이 구가한 삼지연관현악단의 강릉과 서울지역 공연에 대한 담례방문형식으로 평양을 방문한 남측예술단은 북녘인민들의 뜨거운 동포애적환영을 받았다.

남측예술단의 첫 공연이 4월 1일 동명양대극장에서 열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존경하는 리철주녀사와 함께 남측예술단의 공연 《봄이 온

다》를 관람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연에 앞서 남측예술단 주요성원들을 만나시어 4월초 정치일정이 복잡하여 시간을 내지 못할것 같아 오늘 늦더라도 평양에 초청한 남측예술단의 공연을 보기 위하여 나왔다고, 짧은 기간에 성의껏 훌륭한 공연을 준비해가지고온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시었다.

공연이 끝난 후 남측예술단 주요배우들을 친히 몸가끼아 불러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 남측예술단의 평양공연은 《봄이 온다》는 제명과 더불어 북과 남의 온 민족에게 평화의 봄을 불려왔다고 하시면서 지역 좋은 분위기를 소중히 지켜가고 계속 키워나갈 때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언제나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화창한 봄과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될것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르며 그들은 가슴속에 굽어있는 격정의 파도를 억제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제인대통령과 분단의 상징이 되고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매우 의미깊은 상봉을 한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이러한 특별한 곳에서의 만남은 그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알날에 대한 희망과 꿈을 다시 안겨주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분렬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아가 한다는 민족적사명감과 의무를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 하시면서 오늘 그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는 출발선에서 리쳐올린 장엄한 신호탄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상봉과 회담, 4.27선언으로 11년동안이나 담뿍셨던 통일시계의 초침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였으니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력사가 시작되게 되었다.

은 세계의 각광을 받으시며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절세의 위인상을 우러르며 해내의 온 겨레는 뚫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남조선 각계층과 해외동포들은 《김정은위원장의 통큰 결단이 평화의 새 력사를 만들었다.》, 《담대한 지도자의 기질을 타고 나서시었다.》, 《민족의 미래가 기대되는 위인이시이다.》, 《민족의 자랑스러운 떠발한 지도자이시다.》 등으로 격찬하고있으며 판문점선언이 채택발표됨에 대해서도 《세계사에 길이 남을 력사적합의》,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 《북남관계를 통일으로 진인시킨 대경사》로 열렬히 지지 환영하고있다.

참으로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숭고한 사명으로 새겨안으시고 그 실현에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새로운 통일력사의 위대한 창조자이시며 온 겨레의 희망의 기둥이시고 찬란한 태양이시이다.

\* \* \* \* \*

력사적인 올해신년사에서 적극적인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시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판문점선언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세련된 령도가 있어 지난 11년동안 얼어붙었던 북남관계는 불과 몇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극적으로 전환되고 통일된 강토에서 살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이 실현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와 세련된 정치실력으로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극면을 마련해주시고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길이 아로새겨질것이다.

주제107(2018)년 5월 12일 평양

백두산의 장쾌한 해돋이와 더불어 밝아온 주제107(2018)년 새해의 첫아침 불신과 적대의 얼음장을 깨뜨리며 온 겨레를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부르는 절세위인의 뜨거운 애국의 호소, 위대한 선언이 울려 퍼졌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내의반동일회진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제압박소동과 광란적인 전정부발책동으로 얼어붙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데 대해서와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나가기로 한데 대해 내외에 천명하시었다.

북남고위급회담함에 따라 1월 15일과 17일 판문점에서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우리 고위급대표단과 예술단,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적문

제를 토의협의하는 각 분야의 북남실무회담들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1월 21일과 22일 우리 예술단과견을 위한 현지로해대표단이 남측지역을 방문하여 공연보장을 위한 준비정형을 로해하고 25일에는 우리 선수단과견을 위한 선배대와 녀자빙상호계이선수단이 남측지역으로 나갔으며 마식령스키장에서는 북과 남의 스키선수들이 공동훈련을 하면서 동포애의 정을 나누었다.

바로 이러한 때인 1월 24일 평양에서 열린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에서는 절세위인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높이 받들고 온 민족이 뜻깊은 올해를 조국통일사에 영원히 빛날 대 전환, 대사변의 해로 뱃배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는 연합회의호소문이 채택발표되어 겨레의 통일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취해주시는 애국애족적인 조치에 따라 2월 6일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위해 남측지역에 나가는 우리 삼지연관현악단을 태운 《만경봉-92》호가 동해의 파도를 헤가르며 남조선의 목포항에 도착하였으며 두 날에는 우리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이 서해북로를 통해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진행되는 남조선강원도지역에 들어섰다.

참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주신데 감사하며 남측지역의 악화일로를 견딘 북남관계는 화해와 단합의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월 25일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폐막식에 우리 고위급대표단을 또다시 파견하시는데 이어 3월에 남조선에서 진행된 겨울철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에 우리 대표단과 선수단을 보내주시어 변함없는 북남화해와 관계개선의지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진두에서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대표단들이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여 훌륭한 성과를 올리고 경기, 응원활동으로 경기대회의 성과와 민족의 화합을 넘넘하는 북녘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전하고 남녘동포들에게 기쁨을 더해주시어 이번 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북과 남의 강렬한 열망과 공통된 의지가

안아온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북남관계개선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해당 부문에서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들을 세출해 대한 강령적인 지시를 주시었다.

은 남녘땅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우리 예술단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예술단성원들의 공연준비기간 여러차례 훈련장에 나오시어 곡목선정으로부터 형상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시연회도 몸소 지도해주시었고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는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성과를 따듯이 축하하시고 영광의 기사사진까지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시었다.

절세위인의 이러한 현명함 령도와 따뜻한 손길이 있어 동족사이에서 불화와 리간을 조성시켜 버리고 발광하던 내의반동일세력의 온갖 책동을 물거품이 되고말았으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피어났다.

다》를 관람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연에 앞서 남측예술단 주요성원들을 만나시어 4월초 정치일정이 복잡하여 시간을 내지 못할것 같아 오늘 늦더라도 평양에 초청한 남측예술단의 공연을 보기 위하여 나왔다고, 짧은 기간에 성의껏 훌륭한 공연을 준비해가지고온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시었다.

공연이 끝난 후 남측예술단 주요배우들을 친히 몸가끼아 불러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 남측예술단의 평양공연은 《봄이 온다》는 제명과 더불어 북과 남의 온 민족에게 평화의 봄을 불려왔다고 하시면서 지역 좋은 분위기를 소중히 지켜가고 계속 키워나갈 때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언제나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화창한 봄과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될것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르며 그들은 가슴속에 굽어있는 격정의 파도를 억제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제인대통령과 분단의 상징이 되고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매우 의미깊은 상봉을 한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이러한 특별한 곳에서의 만남은 그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알날에 대한 희망과 꿈을 다시 안겨주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분렬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아가 한다는 민족적사명감과 의무를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 하시면서 오늘 그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는 출발선에서 리쳐올린 장엄한 신호탄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상봉과 회담, 4.27선언으로 11년동안이나 담뿍셨던 통일시계의 초침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였으니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력사가 시작되게 되었다.

은 세계의 각광을 받으시며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절세의 위인상을 우러르며 해내의 온 겨레는 뚫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남조선 각계층과 해외동포들은 《김정은위원장의 통큰 결단이 평화의 새 력사를 만들었다.》, 《담대한 지도자의 기질을 타고 나서시었다.》, 《민족의 미래가 기대되는 위인이시이다.》, 《민족의 자랑스러운 떠발한 지도자이시다.》 등으로 격찬하고있으며 판문점선언이 채택발표됨에 대해서도 《세계사에 길이 남을 력사적합의》,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 《북남관계를 통일으로 진인시킨 대경사》로 열렬히 지지 환영하고있다.

참으로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숭고한 사명으로 새겨안으시고 그 실현에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새로운 통일력사의 위대한 창조자이시며 온 겨레의 희망의 기둥이시고 찬란한 태양이시이다.

\* \* \* \* \*

력사적인 올해신년사에서 적극적인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시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판문점선언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세련된 령도가 있어 지난 11년동안 얼어붙었던 북남관계는 불과 몇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극적으로 전환되고 통일된 강토에서 살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이 실현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와 세련된 정치실력으로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극면을 마련해주시고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길이 아로새겨질것이다.

주제107(2018)년 5월 12일 평양

백두산의 장쾌한 해돋이와 더불어 밝아온 주제107(2018)년 새해의 첫아침 불신과 적대의 얼음장을 깨뜨리며 온 겨레를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부르는 절세위인의 뜨거운 애국의 호소, 위대한 선언이 울려 퍼졌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내의반동일회진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제압박소동과 광란적인 전정부발책동으로 얼어붙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데 대해서와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나가기로 한데 대해 내외에 천명하시었다.

북남고위급회담함에 따라 1월 15일과 17일 판문점에서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우리 고위급대표단과 예술단,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적문

제를 토의협의하는 각 분야의 북남실무회담들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1월 21일과 22일 우리 예술단과견을 위한 현지로해대표단이 남측지역을 방문하여 공연보장을 위한 준비정형을 로해하고 25일에는 우리 선수단과견을 위한 선배대와 녀자빙상호계이선수단이 남측지역으로 나갔으며 마식령스키장에서는 북과 남의 스키선수들이 공동훈련을 하면서 동포애의 정을 나누었다.

바로 이러한 때인 1월 24일 평양에서 열린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에서는 절세위인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높이 받들고 온 민족이 뜻깊은 올해를 조국통일사에 영원히 빛날 대 전환, 대사변의 해로 뱃배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는 연합회의호소문이 채택발표되어 겨레의 통일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취해주시는 애국애족적인 조치에 따라 2월 6일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위해 남측지역에 나가는 우리 삼지연관현악단을 태운 《만경봉-92》호가 동해의 파도를 헤가르며 남조선의 목포항에 도착하였으며 두 날에는 우리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이 서해북로를 통해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진행되는 남조선강원도지역에 들어섰다.

참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주신데 감사하며 남측지역의 악화일로를 견딘 북남관계는 화해와 단합의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월 25일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폐막식에 우리 고위급대표단을 또다시 파견하시는데 이어 3월에 남조선에서 진행된 겨울철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에 우리 대표단과 선수단을 보내주시어 변함없는 북남화해와 관계개선의지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진두에서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대표단들이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여 훌륭한 성과를 올리고 경기, 응원활동으로 경기대회의 성과와 민족의 화합을 넘넘하는 북녘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전하고 남녘동포들에게 기쁨을 더해주시어 이번 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북과 남의 강렬한 열망과 공통된 의지가

안아온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북남관계개선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해당 부문에서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들을 세출해 대한 강령적인 지시를 주시었다.

은 남녘땅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우리 예술단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예술단성원들의 공연준비기간 여러차례 훈련장에 나오시어 곡목선정으로부터 형상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시연회도 몸소 지도해주시었고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는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성과를 따듯이 축하하시고 영광의 기사사진까지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시었다.

절세위인의 이러한 현명함 령도와 따뜻한 손길이 있어 동족사이에서 불화와 리간을 조성시켜 버리고 발광하던 내의반동일세력의 온갖 책동을 물거품이 되고말았으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피어났다.

다》를 관람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연에 앞서 남측예술단 주요성원들을 만나시어 4월초 정치일정이 복잡하여 시간을 내지 못할것 같아 오늘 늦더라도 평양에 초청한 남측예술단의 공연을 보기 위하여 나왔다고, 짧은 기간에 성의껏 훌륭한 공연을 준비해가지고온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시었다.

공연이 끝난 후 남측예술단 주요배우들을 친히 몸가끼아 불러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 남측예술단의 평양공연은 《봄이 온다》는 제명과 더불어 북과 남의 온 민족에게 평화의 봄을 불려왔다고 하시면서 지역 좋은 분위기를 소중히 지켜가고 계속 키워나갈 때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언제나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화창한 봄과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될것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르며 그들은 가슴속에 굽어있는 격정의 파도를 억제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제인대통령과 분단의 상징이 되고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매우 의미깊은 상봉을 한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이러한 특별한 곳에서의 만남은 그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알날에 대한 희망과 꿈을 다시 안겨주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분렬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아가 한다는 민족적사명감과 의무를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 하시면서 오늘 그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는 출발선에서 리쳐올린 장엄한 신호탄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상봉과 회담, 4.27선언으로 11년동안이나 담뿍셨던 통일시계의 초침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였으니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력사가 시작되게 되었다.

은 세계의 각광을 받으시며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절세의 위인상을 우러르며 해내의 온 겨레는 뚫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남조선 각계층과 해외동포들은 《김정은위원장의 통큰 결단이 평화의 새 력사를 만들었다.》, 《담대한 지도자의 기질을 타고 나서시었다.》, 《민족의 미래가 기대되는 위인이시이다.》, 《민족의 자랑스러운 떠발한 지도자이시다.》 등으로 격찬하고있으며 판문점선언이 채택발표됨에 대해서도 《세계사에 길이 남을 력사적합의》,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 《북남관계를 통일으로 진인시킨 대경사》로 열렬히 지지 환영하고있다.

참으로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숭고한 사명으로 새겨안으시고 그 실현에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새로운 통일력사의 위대한 창조자이시며 온 겨레의 희망의 기둥이시고 찬란한 태양이시이다.

\* \* \* \* \*

력사적인 올해신년사에서 적극적인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시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판문점선언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세련된 령도가 있어 지난 11년동안 얼어붙었던 북남관계는 불과 몇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극적으로 전환되고 통일된 강토에서 살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이 실현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와 세련된 정치실력으로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극면을 마련해주시고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길이 아로새겨질것이다.

주제107(2018)년 5월 12일 평양

백두산의 장쾌한 해돋이와 더불어 밝아온 주제107(2018)년 새해의 첫아침 불신과 적대의 얼음장을 깨뜨리며 온 겨레를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부르는 절세위인의 뜨거운 애국의 호소, 위대한 선언이 울려 퍼졌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내의반동일회진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제압박소동과 광란적인 전정부발책동으로 얼어붙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데 대해서와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나가기로 한데 대해 내외에 천명하시었다.

북남고위급회담함에 따라 1월 15일과 17일 판문점에서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우리 고위급대표단과 예술단,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적문

판문점수뇌상봉이 안아온 열광과 환희가 삼천리를 넘어 해외동포사회에도 차넘치고 있다.

불과 몇달전만 해도 새로운 세계대전이 발발한다고 주시되던 조선반도에 화해의 봄, 평화의 훈풍을 안아온

### 평화의 봄은 평양으로부터

판문점수뇌회담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겨레와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게 되었다고 한결같이 환영했다.

나는 세기를 목은 대결과 긴장을 녹여버린 그 봄기운이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의 단합된 힘》,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밝혀주시길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님의 올해신년사에서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신년사가 발표된지 열흘도 안되어 북한의 만남이 실현되고 고위급대표들과 예술단, 선수단들이 11년간 막혀있던 하늘길, 바다길, 땅길로 평양과 서울을 래왕했다. 최고령도자님께서 남측에 배부른 환대와 배려는 감동과 놀라움, 파격의 연속이었다.

《놀라운 파격》, 《이례적인 총격》이라고 남조선의 언론들이 지면을 장식한것처럼 최고령도자님께서는 남북특사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한지 몇시간만에 다른 곳도 아닌 조선로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나주셨다.

오랜 세월 적의가 서린 총구가 지척에서 마주 대하고있는 최대일점지대인 판문점의 남북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하신다니 김정은 최고령도자님의 우

## 세기의 선언, 민족의 앞날을 축복한다

4월의 판문점수뇌상봉과 선언의 발표를 절세의 위인에 대한 격찬과 숭배로 되돌아

### 평양으로부터

주를 안으시는 도량과 대단한 배양, 무비의 담력에 온 민족, 전세계가 경탄의 박수를 보내었다.

적대와 대결의 엄동을 부서내며 평화와 화해의 새 싹을 키워내는 새로운 통일시대의 새봄은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님의 확고한 통일의지에 따라 어지러운 시간과 로정으로 우리 겨레모두에게 완연하게 다가왔다.

4월 27일 아침 9시(당시 평양시간) 겨레와 세계가 주시하는 속에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님께서 판문점에 나오셨다.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잎소리에도 주의가 쏠리고 공기마저 얼어붙는다는 이곳으로 그분께서는 호랑반방한 웃음을 날리시며 일상처럼 행보하시어 분리선에서 기다리고있는 남조선대통령 《세기적인 약속》을 나

### 역사의 새 출발을 알린 판문점선언

동포애, 민족애의 정과 열로 금단의 선, 분열의 벽을 장쾌하게 허무신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님께서는 방명록에 활달한 필체로 이렇게 쓰시었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김정은 2018. 4. 27》

누시었다. 순간 활화산이 터진듯 격정의 환호가 삼천리와 온 행성을 진동시켰다.

박수를 터치며 생중계를 지켜보던 8천만이 일순 숨을 죽였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님께서 문제인대통령의 손을 이끄시고 분리선 북측지역으로 되넘어오시어 다시금 약속을 나누시었던것이다.

그 력사의 화폭은 외세가 만들어놓은 분단선은 이렇게 북과 남이 마음만 먹고 달라붙으면 순간에 지워버릴수 있다는 진리를 온 세상에 깨우쳐준 감동깊은 서사시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대담하고 뛰어난 림기옹변력과 자신감 넘치는 세련된 령도자의 모습을 파시했다.》고 보도하였다.

인류의 눈과 귀가 되어 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의 명장면들을 대서특필로 전승하는 해내외의 근 300명 기자들의 전과로써 우리 겨레의 대기도 벽차게 들먹이고 판문점의 아침은 해서는 바다처럼 설레이게 하였다.

###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님의 명문은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총의를 담아 우리 겨레앞에 다지신 맹약이라고 생각한다.

평화와 변영, 자주통일을 위한 최고령도자님의 신념과 의지는 판문점에서 발표된 《조선반도의 평화와 변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으로 세차게 울려퍼졌다. 4. 27선언, 그것은 외세가

3개 조 13개 항목으로 된 판문점선언에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자주의 원칙을 핵으로 하고 온 민족의 의사와 념원,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지향에 부합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과 방도들이 뚜렷이 성문화되어있다.

판문점선언이 발표되자 남조선 각계는 《8천만겨레와 함께 지지한다. 평화의 문이 활짝 열렸다.》,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평화통일로 나갈수 있는 매우 중요한 소식》, 《남과 북이 이렇게 가까운줄 몰랐다.》

고 격정을 터뜨렸고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엄청난 순환》, 《루데없는 장병》 등으로 신속히 보도하면서 《남북사이에서 더이상 전쟁은 없다.》, 《조선반도에 항구적평화가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하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절세위인께서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하신 시간에는 불과 12시간밖에 안된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님께서 는 단 12시간동안에 상봉과 의장대사열, 방명록기록과 회담, 기념식수, 민찬과 공연관람을 비롯한 수많은 일정을 돌리시면서 두레가 통일의 길에서 금과 옥조도 삼아야 할 력사적인 성업이 채택되도록 하시여 력사의 새 기록을 창조하시었다.

### 위인과의 새 시대

비범한 력사는 평범한 날에 창조된다.

판문점에서 력사적인 만남이 있는 후 남조선의 국민의식구조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김정은 열풍》이 사회 각계에 휘몰아치고있다.

가장 높은 시침물로 판문점수뇌상봉을 지켜본 남쪽의 주민들은 《김정은위원장은 거침이 없었다.》, 《재치가 있고 매우 호랑이였다.》, 《솔직하면서도 대담하였고 유모아적이였다.》, 《김정은위원장은 담대한

강요한 70여년에 걸친 분열과 대결의 과거를 청산하고 민족적화해와 평화변영의 새 력사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민족자주로, 민족공동의 힘으로, 평화변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세기의 불멸성이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님께 문제인대통령은 오늘의 상봉을 축하하듯 날씨도 화창하고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시는 순간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으로 되었다고 슬퍼하였다.

이제부터 판문점수뇌회담을 기점으로 판문점의 상징적의미는 대만해졌다. 대결사를 협력사로 바꾼 통일의 《에덴동산》이 되었다. 민족사를 비약시킨 신화의 땅으로 되었다.

### 새 시대

지도자의 기질을 타고났다.》, 《정말 멋있다. 김일성주석님의 모습이다.》, 《민족의 자랑으로 떠받들 지도자이다.》 등으로 자기들의 소감들을 주저없이 털어놓고있다.

주세에 민감한 젊은층속에서는 최고령도자님의 옷차림이나 대화법, 필체 등 《김정은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언론들은 최고령도자님의 일거수일두족이 《김정은신드롬(열광적인기)》을 불러일으켰다고 소개하였다. 더우기 최고령도자님께서

지난 11년간 최악의 대결에 접해있던 북남관계가 판문점에서 평화변영의 넓은 길에 들어섰다.

이제 북과 남의 겨레가 힘을 합치면 하나된 조국은 지구촌이 부러워하는 강국으로 세계에 우뚝 서게 될것이다. 민족의 강인한 자립정신과 반만년을 이어온 뛰어난 슬기로운 지혜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할것이다.

민족분열의 비극이 절게 드러워지고 북남쌍방의 무력이 가장 첨예하게 대치되어있는 위험천만한 판문점을 수뇌상봉장소로 정하시고 남측지역에까지 스스로를 이어나가시어 민족사의 새시대를 열어주시는 만고절세의 위인을 모시어 판문점은 온 겨레와 온 세상의 축복을 받는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되었다.

### 새 시대

지도자의 기질을 타고났다.》, 《정말 멋있다. 김일성주석님의 모습이다.》, 《민족의 자랑으로 떠받들 지도자이다.》 등으로 자기들의 소감들을 주저없이 털어놓고있다.

주세에 민감한 젊은층속에서는 최고령도자님의 옷차림이나 대화법, 필체 등 《김정은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언론들은 최고령도자님의 일거수일두족이 《김정은신드롬(열광적인기)》을 불러일으켰다고 소개하였다. 더우기 최고령도자님께서

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북과 남이 하나로 된다는것은 그 어떤 추상적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르고 갈라져있는것을 하나로 합치고 서로 맞추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신 말씀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평양시간을 고침에 대하여》로 실천하

신대대 《김정은위원장님 약속하면 무조건 실행한다 언행의 일치로 보여주고있다.》고 감동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님께 대한 세계의 열광도 뜨거웠다.

필리핀 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은 나의 우상이 됐다.》고 하면서 《절묘한 행동으로 그는 이제 모든 사람의 영웅》이 되었다고 경모심을 터치었다고 한다.

프랑스 언론인 《김정은위원장은 값진 승리를 얻었다.》고 한것을 비롯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 지도자들이 판문점수뇌회담에 극적인 관심을 돌리였으며 정치전문가들은 회담의 결과를 두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은 주변지역과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에 적극적인 작용을 할것이라고 예측하고있다.

미국의 한 정객은 《남북정상회담의 놀라운 판문점선언》이라고 하면서 《북미회담에서 논의될 세부사항과 관련한 기본협약으로 봐야 한다.》, 《미국은 북미회담에 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정치력학적, 지형학적지위가 한층 상승했음을 말해준다.

나의 젊은 소년으로도 조선반도는 이제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땅이 아니라 유라시아대륙을 힘차게 선도하는 위치에 있다고 본다.

예로부터 조국은 《해돋는 동방의 나라》라고 일컬어오지 않았던가.

한때 인류사를 품어했던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머지않아 《세계의 모든 길은 조선으로 통한다.》로 바뀔것이며 조선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떠오를것이다.

런속적인 총격과 감동, 벽차오르게 하는 환희로 날마다, 시간마다 세계를 깜짝 놀래우며 새로운 기적과 사변을 창조해내는 조선이다.

나는 총격과 감동의 이모든것이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 명쾌한 결단과 대담한 포용력,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민족자주, 민족우선, 민족주의의 대외 경륜을 펼치시는 최고령도자님의 절대적인 위인상이 안아온 필연적결과이며 최고령도자님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은 주변지역과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에 적극적인 작용을 할것이라고 예측하고있다.

북과 남의 화해와 민족의 단합, 조선반도의 평화와 변영을 안아온 판문점수뇌상봉과 회담, 판문점선언이 일으킨 《김정은열풍》은 판문점의 봄을 조선반도의 풍성한 가을로 이어놓을것이며 21세기 조선을 통일강국으로 세기의 창공에 뱃내일 것이다. 재미동포 손율주

##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통큰 결단과 뜨거운 동포애, 확고부동한 통일의지에 의하여 력사적인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변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탄생하였다. 온 민족은 북남수뇌분들이 합의하여 내외에 발표된 판문점선언을 성실히 리행함으로써 민족적 화해와 평화변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가며 북남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판문점선언에는 《북과 남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

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북남선언들과 모은 합의들을 철저히 리행함으로써 판문점선언과 발전의 전환적극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있다.

민족자주는 판문점선언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는 문제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 변영을 이루고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는데서 주인은 바로 우리 민족자신이다.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화해하고 단결하여 공동보조, 공동행동을 취한다면 그 어떤 복잡한 문제도 우리 민족의 리과로 요구에 맞게 원만히 해결해나갈수 있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 이뤄진 사변적인 성과들은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서로 뜻과 힘을 합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온 겨레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평화변영의 앞길을 활짝 열어나갈수 있다.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녀야 청량하여야 얻을것은 없으며 오히려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세에게 간섭의 구실을 주고 문제해결에 복잡성만 조성하게 된다. 북과 남은 하나의 피를줄

이는 동족이며 서로 손을 맞잡고 북남관계개선과 민족공동의 변영을 이룩해야 할 운명공동체이다. 우리 민족의 전도와 운명문제는 당사자인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면 그만이다.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신뢰와 평화변영, 관계발전을 바란다면 민족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판문점선언에서 확인한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틀어쥐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변영과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전일남

##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돌파구를 마련한 중대한 선언

지난 4월 27일 북남수뇌분들이 합의발표한 판문점선언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일치한 지향과 요구에 부합될뿐 아니라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중대한 선언이다.

판문점선언에서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세계에 약속한것은 커다란 지각변동을 일으키고있다.

왜 그렇지 않았는가. 불과 몇달전까지만 하여도 조선반도의 정세는 격화될대로 격화되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최극단상황에 놓여있었다.

긴장한 조선반도정세와 판문하여 온 세계가 벽적 풀였으며 동북아시아의 화악고나 다름없었던 조선반도

의 사태는 커다란 국제적우려를 자아냈다. 국제문제전문가들은 조선반도에서 총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제3차 세계대전, 세계열핵전쟁의 개시를 의미하며 그 전쟁이 가져다주는 피해가 전지구적인것으로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추산에 의하면 만약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전세계적으로 20조US\$의 경제손실과 500여개의 큰 도시의 파괴, 10억명 이상의 희생과 전지구의 사망이라는 무서운 4대피해를 가져올것이라고 하였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우려는 울해에 들어와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새해를 기점으로 하여 북남사이에서 화해와 단합의 훈풍이 불기 시작하였고 하루가 다르게 번모되는 북남관계개선의 현실은 세상사람들에게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다. 더우기 적대와 대결

의 상징으로 되어왔던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북남수뇌상봉이 열리고 판문점선언에서 맹정의 산물인 오랜 분열과 대결, 전쟁을 종식하기로 천명한다는 국제정치흐름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온것이다.

지금 해내외의 온 겨레는 물론 세계의 각곳에서 력사적인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판문점선언을 적극 지지 환영해나가고있으며 분쟁을 일삼던 나라들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화해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울려나오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외교부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지속적평화와 화해를 향한 길을 닦는데 도움이 될것을 희망한다.》는 성명도 발표하였다.

파키스탄의 한 신문은 사실에서 《세계가 불확실성

과 긴장,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시기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평화적접촉과 선의, 긍정적인 힘을 거부할수 없게 만든 원천》이라고 호평하며 《인디아와 파키스탄 지도들도 다시한번 평화와 우정의 길을 걸어야 할때》라고 하였다.

판문점선언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지향에 부합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민족공동의 강령이다.

조선반도평화는 세계평화의 한 부분이다. 조선반도의 안정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과 직결되어있다.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나감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 적극 기여해나갈 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 판문점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다



남북정상 판문점선언 환영대회 <남북공동성명> 남북 동시발표 기자회견

해마다 4월 27일, 이날은 오고있다.

분열의 70여년간 우리 민족은 이날을 력사의 년대마다 범상치 지나치는 평범한 하루로 맞고 보내어왔다.

평범한 날들중의 하루인 올해의 4월 27일이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력사의 날로 될줄 그 누가 알았으랴.

온 겨레와 전세계가 력사의 이날을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았다.

북남수뇌분들께서 함께 손잡고 북과 남을 자유롭게 오가시며 금단의 선, 분단의 벽을 순간에 허무는 모습, 참으로 많은 의미가 실려있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상을 초월한 파격적인 첫 상봉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평화의 집》 방명록에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뜻을 천명을 남기

시켰다.

4월 27일, 이날 회담에 앞서 방명록에 남기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활달하신 친필은 우리 조선민족에게 평화변영의 밝은 새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판문점의 장쾌한 봄우뢰였다.

### 단상 4월 27일

장철 푸른 소나무의 강의 함만큼이나 강의한 정신으로 우리 함께 앞날을 개척해나가자고 하신 뜻깊은 말씀에도 민족을 위해 자신을 초월처럼 태우시는 그이의 애국적인 헌신이 력력히 어리어있어 격정을 금할수 없게 하였다.

돌이켜보면 2000년 6.15 공동선언의 채택이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원동력으로 하는 자주통일의 시계초침소리는 삼천리에 메아리쳐왔다. 그러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면서 가로막아나선 반통일세력의 민족분열책동으로 하여 통일의 시간을 늦추어준다는 뜻은 천명을 남기

시켰다.

4월 27일, 이날 회담에 앞서 방명록에 남기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활달하신 친필은 우리 조선민족에게 평화변영의 밝은 새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판문점의 장쾌한 봄우뢰였다.

### 단상 4월 27일

장철 푸른 소나무의 강의 함만큼이나 강의한 정신으로 우리 함께 앞날을 개척해나가자고 하신 뜻깊은 말씀에도 민족을 위해 자신을 초월처럼 태우시는 그이의 애국적인 헌신이 력력히 어리어있어 격정을 금할수 없게 하였다.

돌이켜보면 2000년 6.15 공동선언의 채택이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원동력으로 하는 자주통일의 시계초침소리는 삼천리에 메아리쳐왔다. 그러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면서 가로막아나선 반통일세력의 민족분열책동으로 하여 통일의 시간을 늦추어준다는 뜻은 천명을 남기

시켰다.

4월 27일, 이날 회담에 앞서 방명록에 남기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활달하신 친필은 우리 조선민족에게 평화변영의 밝은 새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판문점의 장쾌한 봄우뢰였다.

### 단상 4월 27일

장철 푸른 소나무의 강의 함만큼이나 강의한 정신으로 우리 함께 앞날을 개척해나가자고 하신 뜻깊은 말씀에도 민족을 위해 자신을 초월처럼 태우시는 그이의 애국적인 헌신이 력력히 어리어있어 격정을 금할수 없게 하였다.

돌이켜보면 2000년 6.15 공동선언의 채택이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원동력으로 하는 자주통일의 시계초침소리는 삼천리에 메아리쳐왔다. 그러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면서 가로막아나선 반통일세력의 민족분열책동으로 하여 통일의 시간을 늦추어준다는 뜻은 천명을 남기

본사기자 한일혁



# 대동강의 풍치를 돌구어주는 태양빛 전지유람선

화창한 봄계절을 맞이한 요즘 평양에서 태양빛전지유람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보기에도 좋을뿐 아니라 환경보호에도 리로운 태양빛전지유람선이 아름다운 대동강의 풍치를 더 한층 이채롭게 해주고있는것이다.

얼마전 우리는 출근길에 온 사람들이 함께 주체사상탑 앞 부두에서 떠나는 태양빛전지유람선 《유류2》호에 몸을 실었다.

《안녕하십니까!》

산뜻한 봉사복에 환한 웃음을 띠고 인사하는 봉사원의 친절한 봉사에 마음도 절로 흥그러워진 우리가 신실에 자리를 잡고 잠시 있느라니 《봉-》하고 울리는 배

고동소리가 풍치수려한 대동강의 아침공기를 흔들었다.

잠시후 미끄러지듯 부두를 떠난 배는 맑고 푸른 대동강을 헤가르며 기세좋게 달리었다.

아담하면서도 화려하게 꾸려진 선실에서는 30~4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창문너머로 아름다운 대동강을 부감하며 서로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열심히 책을 읽고있었다.

평양제1백화점에서 일한다는 한 처녀는 매일 이처럼 훌륭한 유람선을 타고 출퇴근을 하니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런가하면 한 중년남성은 오늘 세계가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환경오염문제

를 염두에 두고있는데 환경오염이 없는 태양빛전지유람선이 대동강을 누비고있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면서 태양빛전지유람선이야말로 유서깊은 평양의 풍치를 더 한층 돌구어주는 대동강의 자랑이 아닐수 없다고 하였다.

직업과 나이, 사는 곳은 달라도 하나같이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 하고있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어딘 진정에 넘친 목소리들이었다.

배전에 나서니 봄의 정서가 한껏 느껴지는 대동강의 아침풍경이 우리의 마음을 부풀게 하였다.

맑고 푸른 대동강의 물결

우에 떠있는 《무지개》호며 《대동강》호와 같은 봉사선들, 시원하게 펼쳐진 대동강 유보도에서 아침운동을 하는 로인들, 출근길에 오른 근로자들의 활기찬 모습들...

어느덧 유람선은 김일성광장 앞 부두에 도착하였다. 배에 탔던 사람들이 내리고 또 새로운 손님들이 올랐다.

이들의 출근길이 보다 아름다워지고 훌륭해질 평양의 래일과 잇닿아있다고 생각하니 태양빛전지유람선이 단순한 유람선으로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또다시 배고동소리를 길게 울리며 부두를 떠나는 《유류2》호를 손저어 바래우며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박철남



훈민정음은 15세기에 창제된 고유한 우리 민족의 글자이다.

《훈민정음》이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말인데 이것은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바른 소리를 적는 훌륭한 글자》라는 뜻을 담고있다. 이 글자를 《정음》이라고도 하였고 《언문》이라고도 하였고 《정음》이라는것은 우리 글자의 우수한 특성의 본질과 관련된 이름이었고 《언문》이라는것은 일반사람들속에서 흔히 쓰는 글이라는에서 붙인 이름이었다.

훈민정음은 우리 말의 음

## 국가비밀질문화유산 《훈민정음》 창제원리

훈민정음은 15세기에 창제된 고유한 우리 민족의 글자이다.

《훈민정음》이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말인데 이것은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바른 소리를 적는 훌륭한 글자》라는 뜻을 담고있다. 이 글자를 《정음》이라고도 하였고 《언문》이라고도 하였고 《정음》이라는것은 우리 글자의 우수한 특성의 본질과 관련된 이름이었고 《언문》이라는것은 일반사람들속에서 흔히 쓰는 글이라는에서 붙인 이름이었다.

훈민정음은 우리 말의 음

활용하여 적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때문에 훈민정음은 글자에서 가장 발전된 류형인 날소리글자이며 매우 배우기 쉽고 쓰기 편리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우수한 특징을 가진 글자로 되었다.

실로 《훈민정음》의 창제원리는 우리 민족이 15세기부터 사용하여온 발전된 우리 말의 독특한 조형원리와 사용방법을 반영한 유산으로서 우리 겨레에게 세상에서 가장 발전된 문자를 가진 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깊이 심어주고 있다.

본사기자

평양8경이란 평양의 아름다운 8가지 풍경을 이르는 말이다.

울밀산춘: 모란봉을밀대의 아름다운 봄경치

부벽연월: 옛 성벽우에 자리잡은 부벽루와 대동강물에 비친 달밤의 풍경

영명심승: 해질무렵 영명사와 그 일대의 풍경

련당청우: 예련당(대동강에서 종로로 통하는 길 북쪽에 있던 연못)에서 비 내리는 요란한 소리와 연꽃잎에서 굴러내리는 비방울의 아름다운 모습

본송객: 보통강나루터에서 떠나는 나그네를바래우는 풍경

룡산만취: 룡산(대성산)의 사철 푸른 나무가 늦은 가을에도 푸르러있는 풍경

거문봉주: 거문봉(수레문-갯날 평원리)을 가느막았던 외곽의 성문유지)에서의 배놀이

마탄춘창: 이른봄 대동강여울인 마탄의 눈썹이 물이 넘쳐서 소용돌이치는 풍경

그후 련광정과 룡라도를 평양8경으로 일러오기도 하였다.

본사기자

# 우리 민족의 자랑 - 조선화

우리 겨레가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을 이어오면서 끊임없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민족문화유산들 가운데는 조선화도 있다.

민족적감정과 정서를 풍부하게 담고있으며 현실을 생동하게 그려내는 조선화는 독특한 예술적특징을 가지고있다.

조선화의 고유한 특징은 선명하고 간결하고 섬세한 화법에 의하여 담보되고있으며 그 기초에는 함축과 집중의 원리가 놓여있다. 함축과 집중은 형태, 색채, 명암을 우리 민족의 미감에 맞게 생략하면서 화면구도를 간결하게 하고 대상의 질적특징을 잘 나타내며 작품의 중심을 두드러지게 하는 우월한 조형원리이다.

함축하고 집중하는 조선화의 조형원리는 묘사대상의 본질을 명료하게 돌구어내며 적게 그려 많은것을 느끼게 한다. 조선화화면에서는 형상적조점과 여백 같은 특이한 조형적공간을 볼

수 있고 산뜻하게 조화되는 색채형상과 간결하면서도 조화롭게 그려진 형태를 볼수 있는데 그것은 다 함축과 집중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것과 관련된다. 함축과 집중의 원리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화는 우리 민족회화의 예술적특징을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우리 민족의 중세초기미술의 정화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널리 알려진 고구

려무덤벽화들에는 우리 겨레의 고유한 민족적감정과 미감이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을뿐 아니라 함축과 집중의 묘사원리와 현실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리는 선묘법, 색묘법, 점묘법 그리고 아름다운 색채형상 등 우수한 화법적특징이 구현되어 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회화형식인 조선화는 력사의 흐름과 더불어 발전하여왔다.

고려시기를 거쳐 조선본궁 왕조시기에 이르러 조선화는 현실에 대한 반영과 조형적형식에서 많은 변화를 이룩하였다.

민족적정통을 귀중히 여기고 장려해나가는 공화국에서 조선화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시대적제한성을 완전히 극복하였으며 민족미술의 주되는 회화형식으로 전면적인 개화발전을 이룩하고있다.

본사기자



조선화 《묘향산의 하비로》

공화국의 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에서 국가전지도첩(자연편)을 새로 만들어 내놓았다.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를 반영한 국가전지도첩(자연편)이 완성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추동하는데 필요한 지리정보자료를 제공할수 있는 지도학적전원이 마련되게 되었다.

개발자들은 국가전지도첩의 사명과 작성원칙에 맞게 전

지도도첩의 수리적태도를 결정하고 축적범위를 임의로 확대 및 축소할수 있도록 하였다.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를 반영한 국가전지도첩(자연편)이 완성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추동하는데 필요한 지리정보자료를 제공할수 있는 지도학적전원이 마련되게 되었다.

개발자들은 국가전지도첩의 사명과 작성원칙에 맞게 전

연구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조선지리전서와 조선자연지리자료집 등 속성정보자료들을 입

력하였으며 최근시기의 기상관측자료들과 각종 적산 온도, 서리, 바람, 강수량을 비롯한 세부지표들에 대한 평가모형도 작성하였다.

선진적인 원격조사가술을

받아들여 토양편, 수문편, 해양편, 식물편, 동물편, 자연자원편 등 부문별전지도첩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만들어 지도첩완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국가전지도첩(자연편)은 국토부문과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의 전문가들과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 실리가 큰 국가전지도첩

특히 주제별내용과 공간 및 비공간 정보의 정확도기준을 결정하고 대면부를 작성하였으며 여러편에 수백종의 주제별지도들을 구성함으로써 전자지도제작성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연구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조선지리전서와 조선자연지리자료집 등 속성정보자료들을 입

력하였으며 최근시기의 기상관측자료들과 각종 적산 온도, 서리, 바람, 강수량을 비롯한 세부지표들에 대한 평가모형도 작성하였다.

선진적인 원격조사가술을

받아들여 토양편, 수문편, 해양편, 식물편, 동물편, 자연자원편 등 부문별전지도첩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만들어 지도첩완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국가전지도첩(자연편)은 국토부문과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의 전문가들과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 사화

# 의병장 박준일가의 최후 (4)

글 김정희, 그림 리성일

이날 수차례나 연속 달려드는 왜적들을 물리친 박준은 비장한 각오를 하고 마지않고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러앉혔다.

《아무리 많은 적이 달려든다 해도 내가 물리칠 자리는 없다. 안습현 현감이고 황석산성을 맡은 의병장인 내가 이 성을 버리고 가면 어디로 가겠느냐. 조상들의 뼈가 묻힌 이 땅에서 섬오랑개놈들과 싸우다 죽어 한줌의 흙이 될지언정 절대로 한걸음도 물리설수 없는 내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 걱정은 말고 모두 성을 나가라. 원수를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는것이 마땅치 않느니라.》

아무리 억센 사나이로 해도 수십년세월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인생의 험한 길도 함께 걸어온 안해와 자식들을 리비함없이 어찌 슬프지 않으랴만 박준은 자손대대로 살아오고 살아갈 이 땅에 오랑개의 말발굽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할 숭고한 의무를 지닌 백의민족의 남아였기때문에 이렇듯 대범하게 리비할수 있었다.

소객새가 처량하게 울어대

는 깊은 한밤에 김씨는 너인들과 아이들을 이끌고 정든 남편과 두 아들을 남기고 떠나는 길을 떠났다. 일행을 떠나보내는 박준의 커다란 두눈에 맑은 눈물이 가랑가랑 맺혔다.

짙은 여름밤이 가고 새날이 밝자 왜놈들은 또다시 성으로 달려들기 시작하였다. 밤새 부녀자들이 빠지고나니 성안은 더욱 허전해보였다.

박준이 한창 성주위를 돌며 싸움준비를 살피고있는데 사람의 군사 하나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백사림이 어제밤 물레사라졌소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장수가 없어진것을 안고 백사림이 지금 성을 버리고 뿔뿔이 헤쳐져 성을 나가고있소이다.》

드라마 동남쪽으로 달려간 박준이 군사들의 앞길을 막아나서면서 끝까지 성을 지키려는 장수를 따라 성을 떠날것을 사정하였다.

《의병장어른, 생각을 달리하시오이다. 어떻게 저 많은 적과 장수도 없이 대적하여 싸우던 말이예요?》

군사들을 따라 일부 백성

들까지 성을 나가겠다며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다.

《가고픈 사람은 다 가거라. 더 붙잡지는 않겠다. 그러나 나는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 여기에 태를 묻은 이 몸이거늘 나서 자란 고향향을 지키다 죽은들 무슨 한이 있으리요.》

《그렇소. 뜻있는 사나이에게는 수치스러운 죽음이란 있을수 없소. 의병장과 함께 나도 성을 지켜 끝까지 싸울 결심이요.》

어느새 왔는지 백발을 흘날리며 조종도가 군사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주먹을 높이 들어 웨치고 박준의 손을 잡아 뜨겁게 흔들었다. 박준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아 머리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쥐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 박준의병장과 조종도의 뜨거운 마음에 머리가 숙여진 군사들과 의병들, 백성들은 자기들의 수치를 깨닫고 분발하여 왜놈들과의 피의 싸움에 떨쳐나섰다.

수적우세를 믿고 손쉽게 성을 빼앗을줄 알았던 왜놈들은 황석산성에 발목을 잡혀 더는 전진하지 못하고 수

많은 시체만 남기었다.

악에 반친 왜놈들은 방어가 약한 동쪽성문을 뚫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할수 없는 범외로와보이였다.

이때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리상과 리후가 놈들을 장검으로 후러갈지며 박준에게로 달려왔다. 박준의 마음은 순간에 백만전병을 얻은듯 든든하였다. 오, 우리 세 부자가 오늘날로 나라에 충성을 다할 때는 왔도다.

놈들은 점점 조여들어왔

프고 결상에 태연히 앉았다.

마지막까지 용감하게 싸우다가 쓰러진 군사들과 백성들속에 차림새를 단정히 하고 홀로 앉아있는 박준의 모습은 누가 보기에든 무척 외로와보이였다.

이때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리상과 리후가 놈들을 장검으로 후러갈지며 박준에게로 달려왔다. 박준의 마음은 순간에 백만전병을 얻은듯 든든하였다. 오, 우리 세 부자가 오늘날로 나라에 충성을 다할 때는 왔도다.

놈들은 점점 조여들어왔

활활 타는 눈으로 놈들을 쏘아보며 장검을 휘두르는 이들의 기세가 겁을 먹은 왜놈들은 뒤걸음만 칠뿐 한걸음도 못하였다. 이들의 주위에는 왜놈의 시체가 잠간새에 뜯겨 찢어졌다.

《저놈들을 당장 사로잡지 못할가.》

비명예 가까운 왜장의 악청이 떨어지자 놈들도 죽기를 각오한듯 이를 악물고 승냥이떼마냥 와— 하며 달려들었다.

두 아들이 아버지를 가운데 세우고 달려드는족족 죽쳐대며 왜놈들을 가가 꺾어 더는 어찌 못하고 말뚝처럼 서있지만 활뿐이었다.

바로 이때 피인—하고 제지는 한 소리가 나더니 힘차게 장검을 휘두르던 박준이 폭 끄고라졌다. 왜장놈의 명령에 의해 발사된 조종탄알이 그의 가슴을 꿰뚫은것이었다. 리상과 리후가 쓰러져 넘어지는 순간에 놈들은 어지러이 칼날을 휘두르며 와 몰려들었다. 붉은 피가 휘뿌러지는 속에 이들을 세 부자가 쓰러진 곳에 걸 붉은 피가 도랑을 이루었다. 실로 눈감박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아버지와 남편들이 성안의 마지막사람이 되었다는것을 알고 그대들과 운명을 같이하려고 달려오던 리우익이 두 머느리가 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아버지—, 《어모—》

선혈이 량자한 피의 전장에 때없이 나타난 소복의 녀인들을 알아 본 섬오랑개들의 눈발들에 야생적인 열기가 번득이기 시작했다.

놈들은 군사들에게 못다한 봉창을 녀인들에게서라도 하려는듯 짐승같은 상판에 피칠갑을 한채로 우아— 맹수마냥 짓어대며 달려들었다.

날과 눈으로 서로의 뜻을 알아차리고 결심을 내릴때라하는것을 느낀 녀인들은 품속에 간수하고 다니던 단검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더러운 무리에게서 자신들의, 아니 이 나라 녀인들의 순결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서슴없이 가슴에 칼을 박았다. 결사의 각오로 마지막까지 왜적과 싸운 대장부들의 붉은 피와 함께 이 나라 녀인들의 가혹하고 순정어린 붉은 피는 서로 합쳐져 이 땅을 더욱 붉게붉게 물들여었다. 아마도 오늘의 이 혈투를 영원히 아로새기려는듯이, 하여 후대말에 먼저간 사람들의 장한 넋을 그대로 전하려는듯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딸, 머느리들을 왜놈과의 싸움마당에서 다 잃은 김씨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늙은 몸이지만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다 바쳤다.

황석산성에 뿌려진 붉은 피가 어찌 이 박준일가의 피

만이라.

이 땅 그 어느 곳이나 왜놈의 더러운 발길이 닿은 곳마다에서 훈민이 나라 수만백성의 선혈에 의해 단군민족의 넋이 곳곳이 지켜져있거늘 박준일가와 함께 황석산성에 피흘린 사람들을 쉽게 잊어서는 안될것이라.

하잘것없는 제 한몸만 살겠다고 누구도 몰래 야밤도 주한 백사림도 종당에는 왜적의 칼에 맞아 더러운 한생을 끝마쳤다.

력사는 공정한 법이다. 누구도 보는데 없어도 끝까지 왜놈들과 용감히 싸운 박준일가의 애국적소행은 결코 묻힐수 없었으니 임진조국전쟁이 있었지 10여년이 지나서 조정에서는 그들의 공을 높이 표창하여주었다.

당시 조정의 표창이 그리 대단한것은 아니로되 력사의 기억속에, 후세의 추억속에 남아있다는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누구나 후세의 추억속에 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원한다고 하여 되는것이 아니고 바란다고 하여 이루어지지 않는것이 바로 이런것이다. 자기 가정을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하고 제 민족을 사랑할 때에 이들과 같은 값없는 죽음과 멋진 후세의 추억이 있지 않을까. ...

(끝)



겨들고 피의 결사전을 벌여왔다.

이제는 마지막시각이 되었음을 알게 된 박준은 황석산성을 지켜 목숨바쳐 싸운 이들은 황석산성에 발목을 잡혀 더는 전진하지 못하고 수

다. 이제는 그야말로 최후의 혈전을 벌릴 때가 되었다.

《애들아, 왜놈들을 뒤우쳐라!》

힘있게 울리는 박준의 웨침소리와 함께 이들은 날이 선 장검들을 번쩍 쳐들었다.